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목표	쌍계사라는 사찰을 배경으로 한 우리조상들의 정서와 역사·문화의 이해 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바른 이해 그리고 국립공원에서의 새로운 사찰 탐방문화 정착,비전제시		
해설주제	사찰을 배경으로 한 전통건축양식 체험 및 국립공원의 이해		
해설재료	국립공원, 사찰의 건물들, 사찰식생	소요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1. 국립공원이란?	· 소개,인사, 해설프로그램 소개 · 국립공원에 대한 소개		
해설주제	2. 쌍계사와 차(茶)	· 쌍계사의 유래 · 우리나라 차(茶)의 시배지 쌍계사		
	3. 사찰의 출입문	· 일주문 역할과 지리산 이름 유래 · 전통 지붕양식 설명과 금강문 설명 ·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 사천왕		
	4. 불탑과 우리 문화의 만남	· 구층석탑의 역할, 불탑의 유래 · 불탑과 함께한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 구층석탑의 층수를 세어보기	십원동전 탑 사진	
	5. 사찰의 식물들	· 사찰에 숲이 울창한 이유 · 배롱나무와 석산이야기		
주제심화	6. 팔영루	· 불교음악(梵唄)의 교육장소		
	7. 안거(安居)	· 사찰의 유래와 선방의 변천사 · 스님들의 수행생활경력은 이력		
	8. 범종루(梵鐘樓)	· 4가지 사물의 용도		
	9. 진감선사 대공탑비	· 탑비의내용과 최치원선생의 소개 · 탑비에 남긴 민족의 아픈 흔적		
	10. 야단법석 괘 불석주	· 야단법석이란 말의 유래 · 괘불석주와 당간지주의 구별		

신청인 :

(서명)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목표	쌍계사라는 사찰을 배경으로 한 우리조상들의 정서와 역사·문화의 이해 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바른 이해 그리고 국립공원에서의 새로운 사찰 탐방문화 정착,비전제시		
해설주제	사찰을 배경으로 한 전통건축양식 체험 및 국립공원의 이해		
해설재료	국립공원, 사찰의 건물들, 사찰식생	소요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11. 차(茶)	· 차는 우리 조상의 일상, · 차를 마시는 것은 수행과 같다.		
	12. 쌍계사 대웅전	· 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들의 명칭 · 우리나라 건축양식, 단집의 변천		
	13. 구시	· 밥을 담은 구시		
	14. 명부전	· 지옥의 심판관 시왕(十王)과 변호사 지장보살 · 염라대왕의 명퇴 위기		
	15. 마애불	· 보살을 닮은 부처 마애불(磨崖佛) · 힘들 때 말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의 뜻		
정리	16. 부도탑	· 스님들의 마지막 보금자리 부도탑		
마무리	17. 마무리	· 부처님께 올리는 소망의 편지 · 질문과 답변 · 마지막 인사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국립공원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과 해설프로그램 소개 · 국립공원의 소개
만남	<p>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김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국립공원은 어떤 곳 인지? 또 지리산이란 어떤 곳인지? 쌍계사라는 사찰을 통해 알아가는 우리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리산 쌍계사 속으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역사의 반열로 오르소서~!!!</p>
국립공원 이란?	<p>제가 조금 전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라고 얘기 했는데, 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네</p> <p>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문화, 역사, 경관자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까지 물려 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p> <p>그럼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몇 개나 있을 까요? ~네</p> <p>20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문화의 보고인 경주국립공원을 저희 공단이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대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지리산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p>
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하여	<p>잠시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출발하도록 할까요?</p> <p>지리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보존의 가치와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6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악형 국립공원으로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3개도(경남, 전남, 전북)와 1개시 그리고 4개 군을 포함하고 있어 무려 471.758km²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여의도 크기의 56배정도의 넓이와 서울에서 부산의 거리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어마 어마 하지 않습니까?</p> <p>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네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p> <p>지리산국립공원의 크기는? ~네 제일 크다 입니다.(산악형 국립공원 중에서)</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쌍계사(雙僊寺)와 차(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계사의 유래 · 우리나라 차(茶)의 시배지 쌍계사
쌍계사(雙僊寺)와 차(茶)	<p>쌍계사의 유래는 신라 성덕왕 22년 서기 723년에 당나라에서 혜능스님의 정상(頂相·머리)을 모시고 와서 작은 절을 짓고 봉안하면서부터입니다.</p> <p>그 뒤 문성왕2년 서기 840년에 진감국사(참고자료 1)께서 이곳에 대가람을 중창하여 옥천사라 하였으나, 이웃 전라남도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어, 정강왕때 절 입구에 두 계곡이 흐른다 하여 쌍계사라 이름지었으며, 임진왜란으로 크게 소실된 것을 인조10년 서기1632년에 벽암스님이 중창(참고자료 2)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p> <p>지금 쌍계사에는 국보 1점, 보물 6점, 시도형문화재 13점이 있습니다.</p> <p>또한 화개 쌍계사 하면 녹차(茶)(참고자료 3)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는 쌍계사 주변이 우리나라 차(茶) 시배지이기 때문입니다.</p> <p>그리고 매년 5월이면 쌍계사 일원에서는 ‘야생차 문화축제’를 열어 녹차의 우수성과 쌍계사 주변이 녹차의 시배지임을 알리고 녹차의 대중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차는 828년(흥덕왕 3년) 김대렴(金大廉)에 의해 최초로 심어져 쌍계사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녹차시배지에 얽힌 일화를 잠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세월이 흘러 1970년대 지금의 방장스님이신 고산스님께서 쌍계사 주지로 처음 왔을때 이곳은 염소와 소의 방목으로 녹차시배지가 거의 고사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시배지를 복원시키기 위해 화개면 전 고을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벗짚과 된장을 얻어 삼년간 복원 끝에 원래의 모습을 찾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녹차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상품화 하여 오늘의 시배지와 하동녹차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p> <p>이제 저와 함께 직접 현장을 체험하시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우리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자~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속으로 빠져 보실까요?</p>
	<p>신청인 : (서명)</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사찰(寺刹)의 출입(出入)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문의 역할과 지리산 이름의 유래 · 전통 지붕양식 설명과 금강문 설명 · 수미산 중턱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
삼신산(三神山) 쌍계사 일주문	<p>사찰입구에 만나는 첫 번째 문으로 속세와 경계가 되는 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청와대 방문시 첫 번째 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차검색대를 통과하고 계십니다.</p> <p>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사찰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잠시 일주문의 현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삼신산 쌍계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쌍계사라고 쓰여 있지 않고 왜 삼신산 쌍계사라고 되어 있을까요?</p> <p>그럼 지리산의 여러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이란 말은 지혜로운 이인(異人) 많다고 하여 지리산(智異山)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한글로 표기 할 때는 지리산이라고 하지만 한문으로는 지혜로울 지(智)자와 다를 이(異)자를 사용해 智異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이 여기까지 흘러 왔다고 하여 두류산(頭流山), 그리고 먼 옛날 중국에서 동방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 3개의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불로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삼신산(三神山)이라고 불렀는데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方丈山)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판에 쓰인 삼신산(三神山)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p> <p>그 외에도 이성계의 조선건국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하여 불복산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의 아픔이 어린 반역산 정말 다양하고 아픔과 역사가 묻어나는 이름들 이죠~!</p> <p>지리산에 오셨으니 이름 몇 가지 정도는 꼭 머릿속에 남기시길 바랍니다.</p>
금강문 금강문 앞에서..	<p>이 문은 일주문과 사천왕문 사이에 있는 문으로 두 분의 금강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통 지붕양식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잠시 위 지붕(참고자료 4)을 한번 보세요.</p> <p>그리고 뒤에 있는 일주문 지붕도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죠? 일주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네 한문의 여덟 팔(八)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팔작지붕이라고 합니다.</p>
	<p>신청인 : (서명)</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사찰(寺刹)의 출입(出入)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문의 역할과 지리산 이름의 유래 · 전통 지붕양식 설명과 금강문 설명 · 수미산 중턱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
금강문 금강문 앞에서..	<p>그럼 금강문의 지붕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지붕의 앞면과 뒷면을 마치 사람 인(人)자 모양으로 배를 맞댄 모양을 하고 있어 '뱃집지붕이라고도 하지만 맞배지붕이라 불립니다. 그 외에도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만들어진 지붕이 있는데 이를 우진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자~그럼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불교의 수문장인 금강역사가 있는데 두분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불교용어를 범어라 하는데 아,흠의 입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영원성과 통일,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이 무슨뜻일까요? 금강은 쇠중에 가장 강한쇠를 말합니다. 오늘 오신분들도 이문을 통과 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꺾끗하게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p>
사천왕문	<p>여기에 있는 네 분을 사천왕(보참고료 5)이라 하는데 옛날 인도종교에서 숭앙하였던 귀신들의 왕이었는데,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p> <p>동쪽을 수호하는 분이 지국천왕이며, 남쪽을 수호하는 분이 증장천왕입니다. 그리고 서쪽을 지키는 분을 광목천왕, 북쪽을 수호하는 분을 다문천왕이라 합니다. 이분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라는 계절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의 감정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천왕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본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천왕 옆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 저는 재복과 복덕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겨울을 관장하는 신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은 신이 되어 미움과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슴속 모든 아픔과 근심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4. 불탑과 우리 문화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층석탑의 역할, 불탑의 유래 · 불탑과 함께한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 구층석탑의 층수를 세어보기
------------------	---

불탑과 우리 문화의 만남	<p>사찰에 가면 가는 곳 마다 탑이 있죠? 탑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탑은 불탑(참고자료 6)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사리(참고 7)를 봉안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하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계시므로 탑 속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늘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p> <p>많은 불교 유물들이 우리 문화를 대변하고 있지만 특히 불탑은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과 음양오행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p> <p>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탑의 층수와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탑들이 홀수로 만들어 진 것으로 시작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양의 수를 길하며, 복되고 아주 좋은 수라고 생각 했습니다.</p> <p>그래서 탑의 층수와 의미를 살펴보면 3층은 천·지·인 삼재를 나타내고 있고, 5층은 음양오행, 7층은 복두칠성, 9층은 양의 완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구천(九天), 99칸집, 구중궁궐(九重宮闕)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p> <p>그러나 탑의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 10층 짝수를 선택한 탑도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석탑, 경천사 10층석탑등입니다. 그러나 이 탑도 1층~3층과 4층~10층을 구분하고 있어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 했습니다.</p> <p>이곳에 보이는 탑은 구층석탑인데 우리나라 탑의 양식은 아닙니다. 주지스님께서 스리랑카 성지순례중 탑의 양식이 맘에 들어 쌍계사에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넣고 탑을 세운 것입니다.</p> <p>자~ 그럼 여기 있는 탑이 몇 층일까요? ~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탑의 층수를 세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p> <p>탑은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참고자료 8) 3부분으로 나눕니다.</p>
---------------	---

	<p>신청인 : (서명)</p>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불탑과 우리 문화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층석탑의 역할, 불탑의 유래 · 불탑과 함께한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 구층석탑의 층수를 세어보기
불탑과 우리 문화의 만남	<p>저기 보이는 저 부분을 기단부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층수를 셀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저기 보이는 저 곳부터 탑신부라 하는데 탑신부부터 층수를 세어 가면 됩니다. 세어가다 보면 저기 위에 부분이 나오는데 저기부터를 상륜부라하여 탑의 층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탑신부 만이 탑의 층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탑은 9층이 되는 것입니다.</p> <p>이제 어떤 탑이라도 층수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십원짜리 동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그 다보탑은 몇 층일까요? 조금 어렵죠? 3층탑입니다. 다보탑처럼 층수를 세기 어렵거나 복잡한 양식을 취하고 있는 탑들이 있는데 이를 이형탑(참고자료 9)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형탑 외에도 2단 기간을 사용하는 탑들이 있어 층수를 세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탑이 대부분 홀수로 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 하시면 쉽게 층수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p> <p>이 탑은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원을 빌면서 탑을 한바퀴 돌겠습니다. 꼭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5. 사찰의 식물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에 숲이 울창한 이유 · 배롱나무와 석산이야기
------------	--

석 산	<p>여러분 쌍계사 뿐만 아니라 사찰에 가면 숲이 울창한데 한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찰주변의 숲이 아름다운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p> <p>첫 번째는 조선시대 조세제도가 매우 엄격할때에 지금과는 달리 사찰에서도 나라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사찰주변에서 그 재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승려들이 몸으로 할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주변 나무에서 목재를 만들어 팔고, 열매를 채취하여 기름이나, 식용으로 팔아 납세의무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p> <p>두 번째 이유로는 화재예방을 위해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사찰 주변에는 왁스층이 발달한 상록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찰주변에 비자람이나 동백림이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낙엽활엽수에 비해 화재에 강하기 때문이지요. 이록 상록수는 화재지연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찰을 짓는 목재나, 주변 정원수로 많이 심게 되었답니다.</p> <p>세 번째 수행스님들과 속세 민간인들과의 격리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수행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변에 숲을 만들어 사찰의 공간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p> <p>지금부터 쌍계사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이는 풀을 석산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은 꽃과 잎이 따로 나기 때문에 9~10월에 오시면 빨간 꽃을 보실 수 있고 평소에는 잎만 볼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상사화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사화는 6~8월에 개화하며 꽃의 색깔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잎이 없이 꽃만 피는 것이 평생 혼자인 스님과 비슷하다고 하여 절에 심었다 하기도 하나 다른 쓰임세도 아주 많은 식물입니다. 뿌리에서 낸 즙을 물감에 풀어 탕화를 그리기도 하고 전분을 채취하여 종이를 서로 붙이거나 책을 엮는 풀로 이용하였는데, 살균력이 있어 이 풀을 사용한 한지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아 불경을 인쇄 하거나 책을 만드는 사찰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또 불교가 처음 시작된 인도에서는 지상의 마지막 잎까지 말라 없어진 곳에서 화려한 영광의 꽃을 피운다하여 피안화라고도 하며 묘지 근처에 많이 있기도 하여 지옥의 꽃, 죽은 이의 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또 사찰에 석산이 많은 이유는 출가한 스님을 연모하다 상사병에 걸려죽은 여인이 꽃으로 피어났기 때문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p>
-----	---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사찰의 식물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롱나무
배롱나무	<p>다음은 배롱나무입니다.</p> <p>꽃이 백일동안 간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며 간지럼나무, 수피가 미끄럽다고 하여 원숭이 미끄럼나무, 자미꽃등으로 불립니다.</p> <p>간지럼나무는 수피가 얇아 사람이 수피를 가지럽히면 가지가 흔들린 다하여, 원숭이도 미끄러질 정도로 수피가 미끄럽다하여, 원숭이 미끄럼나무,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와 사랑을 나눈 자미성에 이꽃이 많이 있었다 하여 자미꽃 이름에 얽힌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p> <p>그 외 쌀밥나무라는 말도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든시절 우리 선조들은 배롱나무가 세 번피고 지면 쌀밥을 먹는다하여 쌀밥나무라고도 하였답니다.</p> <p>이 배롱나무가 버릴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배롱로 할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p> <p>껍질은 얇지만 수피가 단단해 세공품,고급가구,조각품을 만들기도 하고 약효로는 가지를 끊여 마시면 방광염, 잇은 이질,습진, 꽃은 산후출혈치료, 뿌리는 어린이들의 백일해와 기침, 여성의 불임증에 좋고 지혈작용을 한다네요.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나무이지요.</p> <p>그런데 혹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얘기 맞습니다.</p> <p>그런데 어떻게 이 꽃은 백일동안이나 피어 있을 까요?</p> <p>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는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에 꽃 봉우리가 20개 정도 달려 있어 그것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피고지고를 계속 하다보니 계속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p> <p>오랫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 같이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공부하는 자세를 일깨우라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p>
	<p>신청인 : _____ (서명)</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 팔영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음악(梵唄)의 교육장
팔영루	<p>곳은 우리나라 불교 음악의 창시자인 진감선사가 섬진강에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팔음룰로써 어산(魚山)범패를 작곡했다고하며 팔영루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팔영루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중섬이라는 스님이 팔영루를 중창후 인근 고성에 은거 중인 선비 관포어득강이란 선비에게 팔영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8곳을 읊게하고 이를 판에 새겨 팔영루라는 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팔영루에서 바라본 8경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팔영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 8곳을 선정하세요. 잠시후 발표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p> <p>또 한 이곳은 범패의 명인을 교육시켰던 교육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범패가 무슨뜻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범패라 합니다. 지금은 점차 그의미가 퇴색되어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p> <p>지금도 사월초팔일 등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이곳에서 불교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팔영루에서 보는 섬진강의 은빛 모래알과, 햇빛에 강물이 반짝이는 전경이 눈앞에 항상 펼쳐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7. 안거(安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의 유래와 선방의 변천사 · 스님들의 수행생활경력은 이력
-----------	--

안거(安居)	<p>저기 저곳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선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탐방객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p> <p>스님들이 공부하는 선방에서 사찰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는 중생제도 수양을 위해 일정한 거처가 없이 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는 비가 계속내리는 우기가 있어 비를 피하기 위하여 풀과 나무 그리고 벌레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외출을 삼가고 수행과 참선에 증진 할 것을 석가모니께서 계율로 정하니 스님들의 거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p> <p>이때부터 스님들이 일정한 거처를 가지게 되었고 인도의 밤리사라 왕이 대나무 숲을 기증하고 그의 아들이 건물지어 줌으로써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竹林精舍)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p> <p>그런데 우리가 죽림정사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사(寺)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국에 인도에서 두 명의 스님이 불경을 가지고 찾아 왔는데 외국 사신들이 머무는 홍려사(鴻廬寺)에 계속 머물게 되므로, 두 스님이 타고 온 흰말을 기념하기 위하여 백마사(白馬寺)라 고쳐 부르게 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p> <p>또한 사찰은 당간(幢竿)을 찰(刹)이라고 하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님들이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 그 곳을 선방이라 부릅니다. 1년에 90일씩 두 번 하는데 기간을 안거(安居)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여름에 하는 하안거(음력4월15일~7월15. 3개월)만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동안거(음력10월15일~1월15일. 3개월)가 생겨났습니다.</p> <p>그리고 이 안거(安居)는 스님들이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찰의 선방을 다니면서 함으로 나중에 스님들의 이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p>
--------	---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p>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8. 사물(四物)	· 4가지 사물의 용도
사물(四物)	<p>삼라만상의 영혼을 달래주는 이 4가지 물건은 의식이나 범회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 4가지 물건을 사물이라고 하는데 이곳 범종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종만 있었으나, 범고, 목어, 운판을 모아 놓은 곳으로 발전하였습니다.</p> <p>범종 우리 인간과 같이 텃줄을 통하여 태어나(태생) 잘못된 업으로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치는 것입니다. 범종은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참고자료 10)을 친답니다.</p> <p>범고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으로 북소리가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듯이 불법의 진리로 중생의 마음을 울려 '일심을 깨우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북은 아무렇게나 그냥 칠까요? 아니지요. 언제나 한문의 마음 심(心)자를 작게 그리며 친답니다.</p> <p>목어 모양이 좀 독특하지요? 흔히 용두어신(龍頭魚身)이라 하여 용의 머리에 물고기 몸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나요? 습한 곳이나 물속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을 위해서 치는 공양구로 목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엔 창고에 걸어 놓고 울력을 알릴 때 치기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목탁도 바로 이 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넌센스 퀴즈하나 내어 볼까요. 물고기가 잠을 잘 때 눈을 뜰까요? 감을까요? 네 눈을 뜨고 자고, 죽어서도 눈을 뜹니다. 목어를 보면서 항상 끝없이 수행에 정진하라도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p> <p>운판 이쪽엔 동판이 하나 매달려 있네요. 이것은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허공을 헤매며 떠도는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 치는 공양구로 운판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보면 구름모양 같지요? 예전엔 공양간에 걸어 놓고 공양 시간을 알릴 때 쳤으며, 구름 속에는 비가 들어 있다 하여 불을 다루는 공양간에 걸어 두고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답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9. 진감선사 대공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비의 내용과 고운 최치원선생의 소개 · 탑비에 남긴 민족의 아픈 흔적
진감선사 대공탑비	<p>지금 여러분께서는 쌍계사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귀중한 문화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가장 소중한 문화재나 다름 없으시죠. 국보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탑비는 고승 진감선사 혜소의 높은 도덕과 법력을 양모하여 대사가 도를 닦은 옥천사를 쌍계사로 고친 뒤 정강왕때 건립한 것으로 고운 최치원이 비문을 짓고 썼으며, 환영스님이 새겼습니다. 탑비에 나있는 상흔들이 보이시죠? 바람과 비, 여러 전쟁들을 거치면서 생겨난 상처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상처는 총탄을 맞아 생기 것이라고 합니다.</p> <p>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침략을 받았던 우리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p> <p>진감선사 탑비에 어떤 내용들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으로 구성된 탑비 내용은 1단은 서론으로 당나라 유학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 불교와 유교에 대한 차이가 있을수 없다라는 내용과 진감선사가 중국에 우리나라 위상을 떨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2단은 진감선사의 출생과 출가, 쌍계사 창건과정, 그의 생애를 나열 하였습니다. 3단은 비문을 쓰게된 경위와 4단은 위모든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나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글은 최치원선생이 31살때 쓴 비문 이라고 합니다. 글씨체는 해서체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사산비문이라해서 4개의 사찰의 비문을 쓴다고 그중 쌍계사가 현존하는 것들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0. 야단법석 괘불석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단법석이란 말의 유래 괘불석주와 당간지주의 구별.
야단법석 괘불석주	<p>여러분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말 들어 보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고 가끔씩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돌기둥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p> <p>옛날에는 큰 법회가 자주 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법당 안이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p> <p>그런데 밖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여기 괘불석주에 부처님의 탕화 을 걸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3백만명까지도 모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얼마나 떠들썩하고 시끄러웠겠습니까?</p> <p>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하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탕화석주가 아니고 괘불석주일까요?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 놓는 탕화를 괘불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괴불석주에 나무로 만든 괘불대를 이용해 괴불을 걸었다고 합니다.</p> <p>어떤 분들은 이거 당간지주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간지주와는 다릅니다. 당간지주는 사찰의 법회나 기타 행사 등을 알리는 당을 달기 위해 당간(참고자료 11)을 고정시켜주는 돌기둥을 말하며 크기도 괘불석주 보다는 큼니다. 그리고 용도가 이렇다 보니 위치도 사찰 입구에 있습니다.</p> <p>이제 여러분 당간지주, 괘불대 확실히 구분하실수 있으시죠? 반대로 기억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1. 차(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이면 차(茶)를 마시고 밤이면 잠을 잔다. <p>저기 보이는 녹색 나무가 차(茶)나무입니다. 여기가 차(茶)의 시배지인 만큼 주변 어디를 가시나 차(茶)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녹차가 바로 이 나무의 잎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녹차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잎으로 차(茶)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 따라 녹차, 우롱차, 홍차 등 여러 가지 차(茶)로 불리는 것입니다.</p> <p>차(茶)의 종류를 나눌 때는 대부분 잎의 발효정도로 나누는데 녹차는 전혀 발효를 시키지 않은 차(茶)를 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녹차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차(茶)하면 자연스럽게 녹차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녹차는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 등으로 불리며 우전이 가장 좋은 차입니다. 여기서 잠시 차(茶)와 관련된 스님들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진감선사와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p> <p>진감선사께서는 쌍계사를 창건하시고 주변에 차(茶)를 심어 이 사찰을 찾는 신도들이나 스님들에게 차(茶) 잎을 환으로 만들어 먹게 했으며, 부처님께 올리는 물은 항상 첫물에 탄 녹차를 올렸다고 합니다. 녹차를 너무나 좋아하여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경건해진다고 스님들과 항상 녹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평소부터 범패를 잘 불렀는데 녹차를 마시고 난 후 범패를 부를 때면 그 목소리가 옥구슬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신도들 너도, 나도 녹차를 마시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 중 노래를 잘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녹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p> <p>또한 스님들이 녹차를 마시는 것은 수행과 같다하여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하며 고려시대 이규보는 스님의 품격이 높은 것은 오직 차(茶)를 마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서산대사께서도 “낮이면 차(茶) 마시고 밤이면 잠잔다”라고 하여 차(茶)를 마시는 것을 스님의 수행에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커피 대신에 차(茶)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p>

차(茶)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2. 쌍계사 대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들 ·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양식(기둥, 공포)
대웅전(大雄殿)	<p>보물 제 500호인 이 대웅전은 진감선사가 초창한 이래 임진왜란 때 사찰이 불에 타 성종스님과 법훈스님이 영조11년(1735년)에 중수하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p> <p>저기 현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네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지요.</p> <p>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얘기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하면 대웅전이 없는 사찰도 있던 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럼 왜 대웅전이 없을 까요?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을 주불 또는 본존불이라고 하는데 주불이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예를 들어,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면 대웅전이라 하고 아미타불을 모시면 아미타전,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이라 하며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을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강원도 월정사의 경우는 적광전이나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다. 원래는 대웅전이었으나 1950년 적광전으로 현판을 고쳐 단 것)이라고 부릅니다.</p> <p>그리고 이 세분 부처님을 삼신불이라 부르지만, 많은 사찰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찰에 가면 꼭 대웅전이 있는 것처럼 느낀답니다.</p> <p>그럼 혹시 대웅보전이란 쓴 현판을 보신 적 있나요? 대웅전의 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p> <p>이제 대웅전 안을 한번 볼까요? 그럼 저분이 누구실까요? ~네</p> <p>현판이 대웅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죠. 쌍계사는 세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기 중앙계신 분이 주불이신 석가모니불, 좌측에 아미타불, 우측이 약사여래불입니다. 그런데 중앙 위에에 지붕이 있고 집모양이 보이시죠? 무엇일까요? ~네 단집이라고 합니다. '달'이란 '따로'라는 옛말로 단집이란 집안에 '따로 지어놓은 또 하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p> <p>무더운 인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다 보니 너무 더워 햇볕을 가리기 위해 산개(일종의 우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p>
	<p>신청인 : _____ (서명)</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2. 쌍계사 대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들 ·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양식(기둥, 공포) <p>처음에는 천을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이나 목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집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장인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어 저 개인적으로 쌍계사의 건물 중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마침 안에 절을 하고 계신분이 계시네요. 저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양 팔꿈치, 양 무릎, 이마 몸의 다섯 곳이 땅에 닿는 다고 하여 오체투지(五體投地)라고 합니다. 저기 손동작 보이세요. 마지막에 양손바닥을 하늘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받드는 모양이라고 합니다.</p> <p>부처님께 절 올리는 방법은 체험을 하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이제 기둥(참고자료 12)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포양식이 다, 주심포 양식이다, 배흘림 양식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네 저기 기둥위에 예쁜 모양들이 보이시죠? 저 모양들을 공포(栱包)(참고자료 13)라고 하는데 기둥과 기둥사이에 저 모양이 여러 개 들어 있으면 다포식, 저 모양이 기둥위에 한개만 있으면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둥의 양식은 무슨 양식이죠? 네 다포식입니다. 쉽죠? 그런데 익공양식이라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심포식을 간소화 한 것으로 기둥위에 새 날개 모양의 장식이 된 것을 말 합니다. 쌍계사에서는 명부전이 익공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명부전 설명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기둥이 이렇게 배(손으로 배가 나온 모양을 취함)가 나온 것처럼 생겼으면 배흘림, 밑으로 가면서 안정감을 주기위해 점점 굽어지면 민흘림, 원형의 기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굽기가 같으면 원통기둥이라 하며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양식에서는 이 세 가지 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양식은 원통기둥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감상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p> <p>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p> <p>이 대웅전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을 까요? ~네. 1735년에 지었으니까 약 300년이 조금 못되었죠?</p> <p>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약 30년 정도라고 합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2. 쌍계사 대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들 ·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양식(기둥, 공포)
대웅전(大雄殿)	<p>그리고 콘크리트의 수명은 최고 10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목조건물로 600년이 훨씬 넘은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도 100년 이상을 가지 못하는데 나무와 흙으로 지은 건물이 600년을 넘기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건축물이 오래 가는 이유중 하나가 기둥과 함께 그랭이질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형에 맞게 기둥을 세우고 초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진, 풍수해에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백 년은 더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드리고 생각 할 때마다 우리선조들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p> <p>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일을 국립공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시간 이후 여러분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과 함께 우리문화 지킴이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3. 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을 담는 구시
구시	<p>여기 있는 이 물건은 구시라고 하는데 대중들이 공양을 할 때 밥이나 나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밥통을 사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았는지 짐작이 되시죠?</p> <p>앞에서 얘기 했던 괘불석주와 더 붙어 옛 날에 번성했던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시는 재료에 따라서 목화, 석화, 철화로 나누며 이것처럼 나무로 만든 것은 목조라고도 합니다.</p> <p>여기 쌍계사의 구시는 목재로된 것으로 나무중에서도 싸리 나무라고 하네요. 이정도 엄청난 사리나무가 아주 오랜 옛날에는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도 지방에 굵은 싸리 나무가 많았다고 하네요.</p> <p>구시의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 우리조상들은 밥도 많이 먹고 일도 죽어라 열심히 했던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네요.</p> <p>어러분은 어떠세요? 한번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4. 명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옥의 심판관 시왕(十王) · 염라대왕의 명퇴 위기
명부전(冥府殿)	<p>명부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유명계(幽冥界)(참고자료 14) 말한다고 합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참고자료 15)을 모시고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기능을 하는 전각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곳이므로 지장전이라고도 하며, 지옥의 심판관 시왕(十王)(참고자료 16)을 모신 곳이라 해서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합니다.</p> <p>사람이 죽으면 저기에 보이는 10명의 대왕에게 차례로 심판을 받으며 10명의 판관을 시왕(十王)이라 부릅니다. 7일에 한번씩 7명의 대왕에게 심판을 받으며, 그리고 백일과 1주년 마지막으로 3주년에 10번째 대왕에게 심판을 받으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p> <p>천당과 지옥의 경계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쌍계사는 시왕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명부전이라 했는데, 지장보살을 중요시하는 절에서는 지장전이라고 합니다.</p> <p>혹시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시나요? 네~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지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군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제사는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사상에서 시작되어 조선시대 성리학이 크게 유행함으로써 주자가례(관,혼,상,제)라는 유학 예법서가 일반백성들에게까지 일반화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대조까지 제사를 지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상을 치르는 등 조선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예법들이었다고 합니다.</p> <p>물론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명부전은 우리 민족문화와 불교가 융화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의식의 깊숙이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좋은 증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명부전 외에도 산신각, 칠성각(보충자료 17)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p>요즘 유행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 잠시 들려 들이겠습니다. 제목은 염라대왕의 명퇴 위기입니다. 옥황상제께서 최근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 때문에 염라대왕에게 명퇴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p> <p>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바로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4. 명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옥의 심판관 시왕(十王) · 염라대왕의 명퇴 위기
---------	---

명부전(冥府殿)	<p>나이를 많이 먹어 눈이 좀 침침하긴 했지만 사실 한국인들은 성형수술과 연예인 따라잡기의 유행으로 모두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천당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천당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보낸 한국인들은 찜질방으로 단련된 체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옥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옥에서 들려오는 염라대왕을 좌절케 하는 이 한마디! 애들아 유행불 나온다.</p> <p>잠깐 제가 대응전을 설명 하면서 익공양식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위를 보시죠? 주심포 양식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익공양식입니다.</p> <p>*</p>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5. 마애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살을 닮은 부처님 마애불(磨崖佛) · 힘들 때 말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	--

마애불(磨崖佛)	<p>이 처럼 큰 암석 한 면을 파내어 새기거나 아니면 그냥 큰 바위에 새긴 불상을 혹시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애불 또는 마애석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경 백제에서 처음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많은 마애불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찰을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내에 마애불이 있는 사찰이 많지 않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애불을 만들려면 큰 바위가 필요 하겠죠? 그런데 사찰 내에 큰 바위가 없으니 주로 암벽이나 산속의 큰 바위에 새졌다고 합니다. 무려 17M가 넘는 마애불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서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한점을 감상하시는 것입니다.</p> <p>그러면 이제 쌍계사의 마애불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마애불은 바위를 값질(참고자료 18)처럼 만들어 불상을 봉안한 특이한 형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박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보살이 아니냐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부처님이 맞습니다.</p> <p>그리고 저기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고 새겨진 글이 보이십니까? 읽기는 힘들죠? 저도 외워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아미타불 또는 나무관세음보살이란 말을 들어 본적이 있으세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죠? 바로 나무(南無)라는 말입니다. 나무(南無)라는 불교용어는 돌아가 의지하다 뜻이며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p> <p>그럼 아미타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참고자료 19)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가 되겠죠?</p> <p>그런데 석가모니부처나, 비로자나부처님도 있는데 왜 아미타부처나 관세음보살을 찾을 까요?</p>
----------	---

23/26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5. 마애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살을 닮은 부처님 한 마애불(磨崖佛) · 힘들 때 말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마애불(磨崖佛)	<p>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먼저 아미타부처는 서방정토(西方淨土)(참고자료 20)에 살며 인간 구제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전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은 역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살피는 보살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희들을 잘 보살펴주시옵시오 라는 말로 교회에서 말하는 아멘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p> <p>여러분도 힘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지도 모릅니다.</p>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6. 부도탑	· 스님들의 마지막 보금자리 부도탑
---------	---------------------

부도탑(浮屠塔)	<p>이 부도탑은 스님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면 시신을 화장하여 나오는 사리를 모아서 지금의 형태의 탑을 만듭니다.</p> <p>부도탑은 절안에 없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을까요?</p> <p>불탑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승배의 대상이라 절안에 있을수 있지만 스님은 승배의 대상 즉 신이 될수 없기 때문에 절에 외진곳 한곳에 따로 자리를 잡아 세운다고 합니다.</p> <p>또한 각 부도에는 대개 탑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곧 개개인 승려들의 행적은 물론이고 다른 승려와의 관계와 사적(寺蹟), 나아가 당시의 사회 및 문화까지도 알려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p> <p>이 부도탑 해설을 마지막으로 저의 해설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p>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6.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님께 올리는 소망의 편지 · 마지막 인사
----------------	---

마무리	<p>지금부터 여러분께 편지지 한 장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안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가 쌍계사에 올 때마다 부처님께 대신 빌어 드리겠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도 나 아닌 타인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p> <p>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사찰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저와 함께 알아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국립공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역사·문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역사·문화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잘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이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 <p>잠시 다른 궁금한 점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p>(질문 및 대답 그리고 탐방객의 의견청취)</p> <p>앞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항상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의 주인은 저도 여러분도 아닌 우리의 다음세대입니다. 지리산과 함께한 시간이 잊지 못 할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p>
------------	---

	신청인 :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p>참고자료 1 - 진감국사 진감국사 혜소(774~850)스님은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며 속성은 최(崔), 본관은 전주(全州)다. 법호는 혜소(慧昭), 시호는 진감(眞鑑)이다. 804년 당나라 창주(滄州)에 가서 진감스님 밑에서 공부하여 810년 송산(崇山)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830년(흥덕왕 5년) 신라에 귀국하여 장백사에 있었으며, 그 후 쌍계사에 머물며 중국에서 배워온 범패(梵唄)를 이곳에서 발전시키고 가르쳐 우리나라 범패의 효시로 불린다. 저서에 “어산구감(魚山九鑑)이 있다.</p>
	<p>참고자료 2 - 중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창(初創) - 제일 처음 사찰을 세운 것을 말함 ○ 중창(重創) -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 중수(重修) - 건물 등 낡고 현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침
용어정의	<p>참고자료 3 - 녹차(차(茶)나무) 차(茶)나무는 다년생 상록수로 키가 작은 관목이며, 잎은 어긋난 긴 타원형으로 길이 3~4cm로 두텁고 윤기가 있다. 열대지방에서 온대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생산한계 온도는 연평균기온이 12~13℃이고 연간 강수량은 1,30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토양은 약산성을 좋아한다. 하동 차나무는 중국 소엽종 계통이다. 녹차는 잎의 크기와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곡우(4.20)이전에 딴 아주 어린 차), 세작(곡우부터 입하 전까지 딴 차), 중작(입하 무렵에 딴 차), 대작(중작보다 더 굳은 잎을 따서 만든 거친 차)으로 구분하며 우전을 가장 좋은 차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茶)나무로 알려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에 소재하는 이 차(茶)나무는 수령을 천년으로 예상한다. 해마다 하동군에서는 야생녹차축제를 5월경에 열고 있으며, 이 나무에서 채취한 차(茶) 잎으로 만든 녹차가 2007년 천년 차(茶) 경매 행사에서 일금 천삼백만원에 낙찰 되었다.</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p>참고자료 4 - 지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작지붕 - 지붕면이 사면이지만 측면 지붕부 삼각형의 합각부면이 있어 궁궐이나 대웅전 등 아름다움이나 위용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한다. ○ 맞배지붕 - 두 개의 지붕이 서로 맞대고 있는 형태라 하여 맞배지붕이라 한다. ○ 우진각 지붕 - 우진각지붕은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만들어진 형태로 전, 후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모양이고 양 측면에서 볼 때는 삼각형의 지붕형태이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5px;">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div>
	<p>참고자료 5 - 사천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지국천왕 - 중생을 두루 보살피고 국토를 지킨다고 한다.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고 왼손은 주먹을 쥐고 허리에 대고 있거나, 보석을 손바닥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 남장증장천 - 자신의 덕망으로 만물을 소생시킨다. 오른손에는 용을 움켜쥐고 있고 왼손은 위로 들어 용의 입에서 빼낸 여의주를 엄지와 중지로 쥐고 있는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방광목천- 응변으로 온갖 나쁜 말들을 물리친다고 한다. 오른손에는 삼지창을 왼손에는 보탑을 받들고 있다. 보탑 속에는 보물이 들어 있어 이를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복과 덕을 베푼다고 합니다. ○ 북방다문천 - 도량을 지키면서 항상 설법을 듣는 다고하여 다문천 새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환한 미소를 띠며 비파를 타는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p>참고자료 6 - 불탑(佛塔)</p> <p>탑의 기원은 사실 고대 인도에서 성인의 유해를 화장하고 그 유골을 봉안하던 스투파(stupa)에서 비롯하였다.</p> <p>불탑(佛塔)이라는 것은 불교발생과 더불어 교주인 석가모니가 입멸(入滅, 涅槃)하자 제자들이 그의 유해를 당시의 사회 장례풍속에 따라 다비(화장)하였고, 다비 후 그 유골인 사리(舍利)를 봉안하면서 더 이상 묘(墓)의 의미가 아닌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많은 탑들을 만들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찰에서 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위축되어 고려 후기 이후에는 소규모의 탑이 조성되고 조선시대에는 탑을 두지 않는 사찰도 생겨나게 되었다. 불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처님의 법(진리, 불경)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대표적인 예로 이를 법신사리라고 합니다.</p> <p>※ 탑의 종류는 층수로도 구분 하지만 그 만든 재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돌을 사용해서 만들면 석탑(석탑의 나라 한국), 황토를 사용한 벽돌로 만들면 전탑(전탑의 나라 중국), 나무를 사용하면 목탑(목탑의 나라 일본)이다.</p> <p>참고자료 7 - 사리</p> <p>사리란 범어 사리아(Saria)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부처나 성자의 유골을 의미 하며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에서 추려낸 구슬모양의 작은 결정체를 말한다. 사리의 종류 사리에는 크게 전신사리(全身舍利)와 췌신사리(碎身舍利)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전신사리 중에서 다시 법신(法身) 사리와 색신(色身) 사리로 분류한다.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된 8개의 탑을 발굴하여 다시 그 사리를 나누어 8만 4천개의 탑을 세웠다고 한다. 탑에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된 곳은 초기에는 3층에 시간이 지나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지만 탑의 대부분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확인이 쉽지 않아 보수를 위해 해체시킨 탑을 보아 추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하지는 않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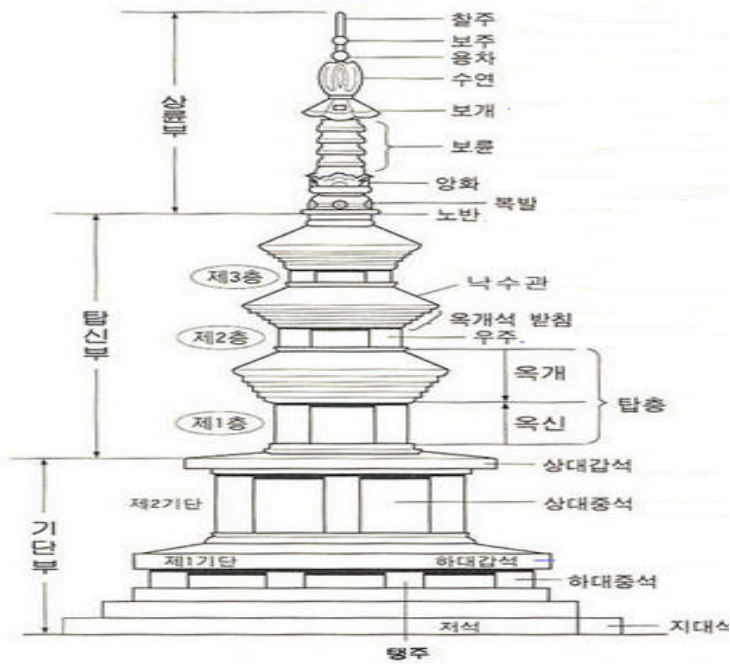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	---------

참고자료 8 - 탑의 구조



용어정의

참고자료 9 - 이형탑

그 구조와 형태가 일반 탑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탑으로 대표적인 이형탑에는 다보탑과 4사자3층석탑등이 있다.



불국사 다보탑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p>참고자료 10 -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 범종을 친다. 아침은 28번은 마하가섭부터 보리달마까지의 28대 조사를 가리키며, 저녁에는 33번은 천상의 28계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을 합하여 33곳에 있는 사바세계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다. 불교의 세계 곧 33천을 의미하고 108번은 백팔번뇌를 타파하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종소리가 지옥으로 울려 퍼지라는 의미에서 종 입구는 아래를 향한다고 한다.</p> <p>참고자료 11 - 당과 당간 당이란 법회나 기도 의식이 있을 때에 절의 문 앞에 세우는 기를 말하는데, 장대 끝에 용의 머리를 만들고 깃발에 불화(佛畵)를 그려 불보살의 위엄을 나타내는 장식 도구를 말하며 이를 달아 놓는 기둥을 당간이라 하며 신라시대 때부터 성행하여 사찰입구에 세워졌다.</p>
용어정의	<p>참고자료 12 - 기둥의 종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배흘림 기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민흘림기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원통기둥</p> </div> </div>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p>참고자료 13 - 공포와 지붕양식</p> <p>목조건축에서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 맞추어 댄 나무 부재로, 건물의 가장 중요한 의장적(意匠的) 표현으로서 장식의 기능도 겸하는데, 그 형식에 따라 주심포식(柱心包式), 다포식(多包式), 익공식(翼工式) 으로 나누어진다.</p> <p>주심포양식</p> <p>다포양식</p> <p>익공계</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p>참고자료 14 - 유명계(幽冥界) 진리의 빛이 없는 세계를 의미하며, 곧 삼악도를 말한다.</p> <p>참고자료 15 - 지장보살 석가모니의 부축을 받아, 그가 입멸한 뒤 미래불인 미륵불(彌勒佛)이 출현하기까지의 무불(無佛)시대에 육도의 윤회 속에 끝없이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나아가 지옥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인도하여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는 보살로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함이 지장보살의 서원이다.</p> <p>참고자료 16 - 시왕(十王) 사람이 죽으면 10회에 걸쳐 조사와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시왕(十王)에 다스리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10명 모두를 염라대왕이라 부르기도 한다.</p> <p>1) 진광대왕(秦廣大王)의 도산지옥(刀山地獄) : 변화의 신은 부동명왕(不動明王) 죽은 지 7일후의 첫 번째 심판을 맡는다.</p> <p>2) 초강대왕(初江大王)의 화탕지옥(火蕩地獄) : 변화의 신은 석가여래(釋迦如來) 죽은 지 14일 되는날의 두번째 심판을 관장한다.</p> <p>3) 송제대왕(宋帝大王)의 한빙지옥(寒水地獄) : 변화의 신은 문수보살(文殊菩薩) 죽은 지 21일째의 세번째 심판을 맡는다.</p> <p>4) 오관대왕(五官大王)의 검수지옥(劍樹地獄) : 변화의 신은 보현보살(普賢菩薩) 죽은 지 28일의 네 번째 심판을 한다.</p> <p>5) 염라대왕(閻羅大王)의 발설지옥(拔舌地獄) : 변화의 신은 지장보살(地藏菩薩) 죽은 지 35일되는 때의 다섯 번째 심판을 한다.</p> <p>6) 변성대왕(變成大王)의 독사지옥(毒蛇地獄) : 변화의 신은 미륵보살(彌勒菩薩) 죽고 나서 42일 되는 날, 여섯 번째의 심판을 맡는다.</p> <p>7) 태산대왕(太山大王)의 거해지옥(鉅骸地獄) : 변화의 신은 약사여래(藥師如來) 죽은 후 49일째의 심판을 관장한다. 이로서 사십구재(四十九齋)가 끝나는 셈이다.</p> <p>8) 평등대왕(平等大王)의 철상지옥(鐵床地獄) : 변화의 신은 관음보살(觀音菩薩) 죽은 지 백일이 되면 여덟 번째의 심판을 맡는다.</p> <p>9) 도시대왕(都市大王)의 풍도지옥(風途地獄) : 변화의 신은 세지보살(勢至菩薩) 죽은 지 1년이 되는 때에 도시대왕에게서 아홉 번째 심판을 맡는다.</p>
	현쪽/전체쪽수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p>10)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의 흑암지옥(黑闇地獄) : 변화의 신은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드디어 죽은 지 3년째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생전의 업(業)에 따라 육도윤회의 길로 나선다.</p> <p>참고자료 17 - 산신각과 칠성각</p> <p>○ 산신각 : 신령스런 산신을 모신 곳이라는 의미에서 산령각(山靈閣)이라고도 하며, 호랑이와 산신을 숭배하는 우리나라의 고대 토속신앙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와 융화되면서 사찰의 한 건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산신각은 대부분 대웅전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부처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산신은 산의 기운을 다스리기 때문이다.</p> <p>○ 칠성각 : 하늘의 별인 북두칠성(北斗七星)을 신격화하여 모신 곳이다. 도교에서 유래되어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와 융화되었다. 칠성님은 자식을 잉태하고 인간의 수명을 길게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p> <p>참고자료 18 - 감실</p> <p>불교·유교·가톨릭 등 종교에서 신위(神位) 및 작은 불상·초상, 또는 성체(聖體) 등을 모셔둔 곳을 말한다. 석굴·고분 등의 벽 가운데를 깊이 파서 석불을 안치하거나, 초상을 그려 놓은 곳도 역시 감실이다.</p> <p>참고자료 19 - 관세음보살</p> <p>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스러운 음성이나 바램을 관찰하여 그들을 구해내는 자비로운 보살님이다. 그래서 이 분을 일러 대비성자(大悲聖者), 구제대비자(求世大悲者)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통대사란 말도 있는데 이는 관세음보살의 능력이 두로 못 미치는 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통전은 이 관세음보살의 원통대사로서의 능력을 강조한 명칭임을 알 수 있다. 그 모습은 왼손에는 연꽃을 오른손에는 감로수 병을 들고 있는 자비로운 현세의 구세자로 연꽃의 봉우리는 중생들 각자가 갖춘 불성을 나타내고 감로수병은 번뇌를 소제하여 청량을 얻게 한다. 다른 부처나 보살과 달리 현세적인 이익을 주는 보살로 모습이 다양하고 중생이 원하면 어느 곳에나 나타난다.</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용어정의	<p>참고자료 20 - 서방정토(西方淨土)</p> <p>불교에서 멀리 서쪽에 있다고 말하는 하나의 이상향(理想鄉)을 말하는데 아미타경에 "여기서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서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고 한 데서 나온 말로, 곧 극락세계를 의미하며 극락정토(極樂淨土)라고도 말한다.</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 국립공원의 이해	<p>국립공원의 이해</p> <p>1. 국립공원의 탄생 1870년 미국 엘로우스톤을 탐험한 탐험대의 보고서에 이토록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을 사유(私有)가 아닌 공유(公有)의 개념으로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이용하자고 제안하여 1872년 세계최초의 국립공원인 엘로우스톤국립공원이 탄생했습니다.</p> <p>2.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1697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 하였으며, 1987년 공원 전문관리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다. 엄정한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목표로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현황 산악형 16개, 해상·해안형 3개, 역사공원 1개로 우리나라 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귀·멸종위기 동물종의 66%, 식물종 65%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전체 문화재의 16%와 313개의 사찰이 소재하고 있어 연간 3천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p>3. 다른 나라들의 국립공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국 - 국립공원 58개, 국립기념물, 국립역사공원등 388개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음 ○ 캐나 다 - 국립공원 41개를 지정 관리하며 현재는 “국립공원을 수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음 ○ 호 주 - 552개의 가장 많은 국립공원을 지정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태관광을 중요시 함 ○ 일 본 - 28개의 국립공원과 55개의 국정공원을 지정 온천휴양과 피크닉 위주의 관리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 불교의 이해	<p>불 교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 기원전 5세기경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후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된 되었으며,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 그로부터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 종교로 동양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불교의 교리는 크게 대승과 소승으로 나눈다. 대승불교는 중국, 몽고, 티벳, 한국, 일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북방불교(北方佛敎)라 부르기도 하며,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라오스 등이 주류를 이루다.</p> <p>우리나라 불교의 전래 ○ 고구려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가장 먼저 수용하고 공인했다. 중국 전진의 왕 부견이 보낸 순도에 의해 전해 졌다. 이때가 소수림왕 2년(372년)이다. 소수림왕때 지어진 이불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이다.</p> <p>○ 백제 중국 동진에서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전해 졌으며 침류왕때 공인하였다. 그 시기가 384년이다.</p> <p>○ 신라 고구려 승려 '묵호자(墨胡子)'에 의해 4세기 초 눌지왕때 전래되었지만 종교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 법흥왕(528년)에 공인되었다.</p> <p>※ 한국 불교의 성격 우리나라 불교의 성격을 한국사(韓國史) 교과서에는 현세구복 적이며, 호국불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래 되었지만 우리민족 고유의 주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p>○ 삼신불 [三身佛] 부처의 몸을 그 성품에 따라 셋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몸이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삼신불은 법신불과 보신불 그리고 응신불(화신불)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신불 :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유의 본체를 형상화한 부처로서 진리를 상징하므로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다. 사찰에서는 비로자나불을 가리킨다. ☞ 보신불 : 보살이 오랫동안 고행과 난행을 거쳐서 된 부처이다. 법장보살이 48대원(大願)을 세우고 정진하여 성불한 아미타불이 이에 속한다. ☞ 응신불 : 법신불이나 보신불을 볼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직접 현세에 나타난 부처를 말한다.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불이 대표적이다.
- 불교용어 설명	<p>○ 약사여래불 약사여래(Bhaisajyaguru)는 불교에서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을 말하는데 이는 약사 부처님(Medicine Buddha)을 의미 한다.</p> <p>○ 미륵불 미륵불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말하여 석가모니불이 입멸한 뒤 56억 7천만년이 되는 때에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華林園)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고 한다. 이 법회를 '용화삼회'라고 하는데,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기 이전까지는 미륵보살이라 하고 성불한 이후는 미륵불이라 한다.</p> <p>○ 보 살 보살(bodhisattva)은 세간과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성자(聖者)말하면, 관세음보살을 비롯하여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다양하고 많은 보살들이 있다.</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 불교전각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륵전 미륵부처나 미륵보살을 주불로 하는 전각을 말하며, 미륵불이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신 후 56억 7천만년 이후에 이 세상이 나타나 중생을 제도할 미래의 부처이다. ○ 약사전 약사여래부처를 주불로 모시며 왼쪽에는 일광(日光)보살 오른쪽에는 월광(月光)보살을 협시불로 한다. 만월전(滿月殿), 유리광전(琉璃光殿)이라고도 한다. ○ 관음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모신 전각을 뜻한다. 대승불교(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몽고, 티벳 등의 국가에서 믿는다. 북방불교라고도 함)의 수많은 보살 중에서 중생들과 가장 친근한 보살임 ○ 영산전 석가모니 부처의 중심 좌우로 부처의 생애를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그린 팔상탱화를 모시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팔상전이라고도 부른다. ○ 나한전 부처님 당시의 깨달은 제자들이란 뜻을 지닌 아라한을 모신 전각 ○ 천불전 일천의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말함 ○ 독성각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은 나반존자를 모신 전각으로 고대토속신앙에서 유래되어 조선시대 불교와 융화되어 절의 한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 삼성각 세분의 성인을 모셨다 하여 삼성각이라 부른다. 즉 독성과 칠성 그리고 산신을 모신 전각이다. ○ 가람각 마을의 성황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곳으로 절 입구에 위치하여 절의 영역을 수호하는 가람신을 모신 곳이다.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 불교의 상징물 설명	<p>○ 연꽃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꽃(부처)과 열매(중생)가 동시에 맺으므로 부처가 중생과 하나 됨을 나타낸다. 또한 연꽃은 아무리 더러운 곳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와 우아한 자태로 진흙탕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 사바세계의 고통이 깊을수록 부처님의 세계가 더욱 가치 있는 것에 비유된다. 관세음보살이 손에 들고 있다.</p> <p>○ 코끼리 코끼리는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로 짐승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며서 짐잡은 동물로 자비의 상징으로 보현보살이 타고 있기도 하며 또한 길상(복을 주는)의 동물로 부처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꿈에 여섯 개의 이빨을 가진 흰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부처님을 잉태 했다고 한다.</p> <p>○ 용 불교에서는 용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데 부처님의 탄생시 하늘에 있는 가라용신(청룡)과 올가라용신(황룡)이 각각 차고 더운물에 목욕시켰다는 설화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법당내부나 벽화 등에 만들며, 불도량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동물로 샅된 기운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신의 역할도 한다.</p> <p>○ 만(卍) 절을 표시할 때 기호로 쓰이며 한자로는 “만”으로서 기호이면서도 동시에 글자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 가슴, 손, 발에 “만”자 표시가 있으며, 이것은 길상과 행운을 나타낸다. 또한 진리의 팔랑개비로 팔랑개비의 날개모양으로 어린이들이 들고 노는 팔랑개비는 빨리 뛰면 빨리 돌고 천천히 뛰거나 걸으면 천천히 돌거나 돌지 않는 정직한 것으로 이것은 진리 그 자체에 비유된다.</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 마애불 - 탕화(幀畵)	<p>○ 한국 마애불의 변천</p> <p>한국 마애불의 시작은 서산의 마애삼존불이라 할 수 있고 6세기 후반의 백제 작품인 이 마애불은 위치나 바위의 형태, 불상의 방향 등을 볼 때 첫 작품이면서도 한국 마애불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백제 특유의 미의식이 담겨 있어 당시 백제 사회의 불교에 대한 저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부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각적 예술미는 8세기 신라의 마애불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남산의 칠불암과 신선암 마애보살상, 용장사지 마애불좌상, 굴불사지 등은 신라 불교문화의 전성기를 자랑하고 있다. 신라 후기에는 전망 좋은 산 정상에 마애불들이 많아지는데 하늘 가까이에 모시기 위한 선택이면서도 백성의 삶터를 바라보도록 배려한 기복신앙 측면이 엿보인다. 이는 당대에 유행했던 미륵신앙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p> <p>마애불의 전성기를 이룬 고려시대 마애불은 미륵불의 개념이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며, 형식이 다채롭고 지방 호족세력의 성장에 힘입어 지방 곳곳에 마애불이 조성되었다. 또한 17M가 넘는 파주 용미리 마애불과 좌상이면서 높이가 15M인 내금강 묘길상 마애불과 같은 초현세적인 듯한 거불의 등장 하였다.</p> <p>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이미 많은 마애불이 조성되었기도 하지만 정치이념이 유교로 바뀌면서 마애불 조성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민속신앙이 융성해져 민불이나 미륵으로 불리던 선돌, 장승, 남·여근석 등이 마애불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p> <p>○ 탕화(幀畵)</p> <p>탕화란 불교 신앙을 그린 내용의 그림을 말하는데 재료에 따라 거는 그림인 탕화(幀畵)와 벽에 그리는 벽화(壁畵) 주로 종이에 그리는 경그림(經畵)으로 나누고 있다. 탕화라는 명칭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며 부처님을 주인공으로 하면 탕화라 하지만, 고승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은 영정이라 부른다. 탕화는 주로 비단과 삼베 등에 그려졌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러 모시·종이 등 그 바탕재료가 한층 다양해 졌다.</p>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일주문 현판 (三神山 雙溪寺), (禪宗大伽藍)-해강 김규진
- 쌍계사 현판의 글씨	○금당의 현판 (六祖頂相塔),(世界一花祖宗六葉)-추사 김정희 쌍계사 만허스님으로부터 손수만든차를 선물받은 보답으로 쓴글 ○대웅전 현판 (大雄殿)선조의 일곱 번째 왕자 의창군 광이 썼다.
- 쌍계사의 부도들	○벽송당(碧松堂) 부도 벽송당 지엄 대사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 허종장군의 휘하에서 여진족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장수출신,28세에 스님이 되었고,벽계정심 대상의 법을 이었다. 이후 지리산 화개의 의신동에서 선을 선양하고 교를 가르쳐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 임진왜란 후 불에 타 버린 쌍계사,화엄사를 중창 대석위에 둥근 몸돌과 8각 지붕돌(옥개석)을 얹은 형태, 지대석에는 연꽃잎이 얇게 조각되어 있으나 땅에 묻혀있다. 하대석은 원판형이며, 탑신은 구형으로 중앙 약간 위쪽에 오른쪄부터 “벽송당”이란 당호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팔각의 옥개석과 꽃봉오리같은 보주는 1개의 돌로 되어 있다. 장식,조각은 없지만 균형과 비례가 알맞아 조출하고도 아름다운부도, 높이 130m, 둘레165cm 아담한 크기 ○허알당(虛闕堂) 부도 벽송당 부도 오른쪽에 있다. 지대석 위에 약간 길쭉한 타원형 몸돌에 연화문이 음각되고 귀꽃 장식이 있는 8각 지붕돌로 구성되어 있다. 몸돌 중앙에 “대종사 허알당 입탑 만력 10년 3위·일 판서라는 명문이 있다. 만력3년은 1582년(선조15년)이다 . 부도의 크기는 높이 130cm 둘레 165cm이다. 허알당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무명 부도 신흥사에 있었던 부도로 복원이 조각된 하대석과원통형의 모듈만 수습하여 2000년에 쌍계사에 모셨다. 쌍계사 부도중 가장 크다.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본존불,보살에 따른 법당 이름과 후불탱화	○ 본존불·보살에 따른 법당이름과 후불탱화		
	본존불.보살	법당이름	후불탱화
	석가모니불	대웅전.대웅보전	영산회상도.3여래탱
	비로자나불	대적광전.비로전.대광명전	3신탱.화엄탱
	아미타불	극락전.무량수전.미타전	극락회상도.아미타삼존탱
	약사여래	약사전.유리전	약사불회도
	미륵불(보살)	용화전.미륵전	용화회상도.미륵탱
	관세음보살	원통전.관음전	관음탱
	지장보살	명부.지장전.시왕전	지장탱.시왕탱
	석가모니.16라한	라한전.응진전	16라한도
	조사의 영정	영모전	조사의 영정
	독성.산신·칠성	삼성각	삼성탱
	-불화	○쌍계사의 불화들 쌍계사 아미타극락회상도와 약사불회도 쌍계사 제석천룡도 쌍계사 팔상도 쌍계사 감로왕도 쌍계사 괘불탱화 6조 혜능진영 쌍계사 산신도 쌍계사 영모전의 고승진영	
-범패		○범패(어산)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불교음악 기원은 인도의 묘음(妙音)보살이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범화경을 설법하자 찬탄하여 음악으로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 시초 중국 범패는 위나라 무제의 넷째아들인 진사왕 자건 조식이 산동의 어산에서 놀때 홀연히 하늘에서 범천의 맑고도 애완한 음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감동하여 음률을 부친것이 시초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자료	○쌍계사8경 쌍계인월(雙磎印月) 청학고루(靑鶴古樓) 현암구제(懸岩久霽)
-쌍계8경	응봉단풍(응(鷹峯丹楓)) 쌍계비폭(雙磎(飛瀑)) 용강모우(龍岡暮雨) 국사천수((國師天樹)) 백운조봉(白雲朝峯)
-팔영루 8경	○팔영루 8경 복사꽃 흐르는 화개천 쌍계·석문 진감선사 비석 금교-(고운선생이 심은 늪은 괴목이 불에 타고 넘어져 금당으로 가는 시냇물에 걸쳐져서 다리가 되었다.) 백운산의 도선선사 비석 청학동에서 신선을 찾다 섬진강청류 강 건너는 호남땅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서명)
---------	-------	------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차(茶)와 인연이 깊은 쌍계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문헌	「한국불교가사전집」 - 민속원 「조선불교통사」 - 이능화 「한국사찰보감」 -우리출판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불교건축」 김봉열 - 솔 「불교회화」 유마리, 김승희 - 솔 「탑」 강우방, 신용철 - 솔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허균 - 돌베개 「엄마따라 절에 가기」 김광호 - 혜성출판사 「전통사찰 총서」 사찰문화 연구원 - 사찰문화 연구원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 - 다른세상 「남부지방 사찰의 식생 및 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조남훈 - 성균관대학교 「국립공원관리제도」 신용석 - 국립공원관리공단 「우리나무백과사전」 서민환, 이유미 - 현암사 「다도예절」 고산스님 「화개면지」 화개면 「하동군지」 하동군 「쌍계사지」 쌍계사 문화재청 홈페이지 쌍계사 홈페이지

현쪽/전체쪽수	신청인 : _____ (서명)
---------	------------------